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남자고등학생의 여성혐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 현실적 집단갈등인식, 사회지배경향성,
성별사회정체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Misogyny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 With a focus on their perceptions of realistic group conflicts,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gender social identity -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민 미 홍

국문초록

최근 우리사회의 여성혐오현상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남성청소년층에서도 여성혐오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혐오가 소수자 차별과 직결되며 민주주의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층의 여성혐오인식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는 남성청소년, 그 중에서도 남자고등학생들의 여성혐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여성혐오문제 해결을 위한 밑바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실적 집단갈등이론, 사회지배이론, 사회정체성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남자고등학생의 여성에 대한 현실적 집단갈등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가설 2> 남자고등학생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일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2-1>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2-2>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가설 3> 남자고등학생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3-1> 가정의 경제적 위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3-2> 자신의 학업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가설 4> 남자고등학생의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가설 5> 남자고등학생의 성별사회정체성이 강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17년 5월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4개

고등학교에서 약 500여 명의 고등학교 1, 2학년 남학생들을 편의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 추론을 하였다.

분석 결과, 남자고등학생들의 현실적 집단갈등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성별사회정체성이 강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하게 나타나 <가설 1>, <가설 4>, <가설 5>는 채택되었다. 반면에 개인 및 국가 차원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은 여성혐오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2-1>과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남자고등학생들은 가정의 경제적 위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강한 여성혐오인식을 보여 <가설3-1>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학업수준은 낮게 인식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하게 나타나 <가설3-2>는 기각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의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여성을 위협적인 경쟁상대로 여기는 것이 여성혐오인식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미래에 대한 전망보다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여성혐오인식에 더 영향력 있는 요인이었다. 셋째, 집단 간에 우열을 매기고 외집단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여성혐오인식도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성별사회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외집단인 여성의 가치를 폄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교육적 함의를 갖는다. 우선, 경쟁적 사회풍토가 여성혐오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도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육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타 소수자 차별 문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여성혐오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혐오인식에 반(反)하는 정보를 교사가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여성혐오인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여성혐오인식, 현실적 집단갈등인식, 사회지배경향성, 성별
사회정체성

학 번 : 2012-21386

목 차

I .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문제 제기와 그 의의	7
3. 연구의 한계	8
II . 이론적 배경	10
1. 여성혐오	10
1) 혐오	10
2) 성차별주의	13
3) 성편견과 젠더 고정관념	15
4) 미소지니	17
2. 현실적 집단갈등이론	20
1)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	20
2) 경쟁의 심화	22
3. 사회지배이론	25
4. 사회정체성이론	26
5. 선행연구 검토	29
1) 여성혐오 관련 연구	29
2)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연구	32
III . 연구방법	35
1. 연구가설	35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38

3. 연구변인 및 측정도구	40
1) 종속변인	41
2) 독립변인	42
3) 통제변인	45
4. 분석방법	47
 IV. 결과분석	 48
1. 상관관계 분석	48
2. 가설검증 결과	49
 V. 결론	 52
1. 요약 및 논의	52
2. 제언	57
 참고문헌	 59
부 록	66
Abstract	71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40
[표 2] 설문지의 구성	46
[표 3]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48
[표 4] 다중공선성 분석 결과	49
[표 5] 여성혐오인식 영향 요인 회귀분석 결과	50
[표 6] 여성혐오현상의 원인 다중응답 분석	57

그 림 목 차

[그림 1]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24
[그림 2] 이론적 배경과 연구모델의 관계	28
[그림 3] 분석모형	4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6년 5월 17일 새벽,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초면의 여성을 살해했다. 범인이 흉기를 들고 화장실에 숨어 있으면서 6명의 남성을 그냥 보내고 이후 들어온 첫 번째 여성을 살해했다는 점, 범행 동기를 그동안 여성들에게 무시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어났고, 이는 여성혐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혐오발언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9년 군 가산점제 폐지 논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전에도 젠더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여성에게 고정된 성역할을 요구하는 전통적 의미의 성차별주의(sexism)는 존재했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 논란은 여성에 대한 혐오, 즉 ‘나쁜 여자’에 대한 범주화와 그에 대한 비난을 본격화 시켰다는 점에서 이전의 성차별주의와 결을 달리 한다.

군 가산점제 폐지 논란 과정에서 여성주의자들의 발언에 대한 왜곡 및 인신공격, 2001년 여성부 창설 이후 추진된 정책에 대한 허위 정보¹⁾, 2005년 개똥녀²⁾, 2006년 된장녀³⁾ 논란 등을 거치면서 여성혐오적 행태

1) ‘여성부 회식비만 600억 원’, ‘성매매 여성들에게 2억 원씩 지급’, ‘여성전용거리 설치’ 등 인터넷에서 ‘여성부 만행’이라고 떠도는 글을 보면 허위 사실이 대부분이다. 물론 ‘부부강간죄 인정’, ‘생리휴가제 도입’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등의 실제 정책도 뒤섞여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여성부에서 개편) 정책의 의의와 실효성에 대한 성찰을 논할 틈 없이 이 모든 것이 ‘여성부의 만행’으로 총칭되었다(윤보라, 2013, p. 40).

2) 서울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린 상황에 대해 사진과 설명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비난이 폭주하여 누리꾼들이 집단적으로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자 하였으며 해당 여성으로 추정되는 이의 개인홈페이지

가 꾸준히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들이 욕먹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미명하에 해당 여성들에 대해 마녀사냥식 비난이 가해지고 논쟁이 남녀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여성혐오현상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반면에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반박하며 해당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⁴⁾, 정치권⁵⁾,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여성혐오범죄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여타의 강력 사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추모 행사와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는 만연한 여성혐오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대중의 우려와 의지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일 것이며,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 분위기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여성혐오란 여성을 주체성을 지닌 개별적 인격으로 보지 않고 ‘여자’라는 하나의 범주로 치환시키면서 여성을 멸시하고 도구화하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우에노 치즈코, 2010, pp. 12-13). 윤보라(2015, pp. 14-32)는 반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현상들이 다 여성혐오는 아니라

이지에 들어가 비난 글을 쓰고 가짜 사과문 등이 올라온 사건이다(“이번에는 개똥녀 파문”, 《한겨레》, 2005.06.06.)

3) 허영심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사치를 일삼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값비싼 유명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점심은 분식 집에서 3~4천 원짜리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커피는 5천 원짜리 스타벅스를 마시는 여성’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인식되었고 이후 남성에 기대어 자기의 소비욕구를 채우거나 지각없는 행동을 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 범위가 확장되었다(위키백과).

4)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묻지마 살인은 잘못된 표현...여성 타깃으로 한 혐오범죄”, 《오마이뉴스》, 2016.05.19.

“”정신병의 증상은 사회적 맥락”...서천석 정신과 전문의 ‘강남 살인사건’은 “여성 혐오” 지적”, 《경향신문》, 2016.05.19.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과 여성혐오”,

<https://www.facebook.com/eunkyung.bae.904/posts/1170316533019795?pnref=story>

5) “[논평]여성혐오 범죄 아니라는 검찰, 개인의 탓으로 본 반쪽짜리 결론이 유감이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54198, 2016.07.11.

고 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는 ‘비난받아 마땅한 여성’에 대한 몇 가지 유형을 만들어내고 거의 모든 한국 여성을 이 유형에 포함시켜 ‘나쁜 여자’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한다. ‘이기적이고 몰염치한(군가산점제 논란에서의 꼴페미6), 여성가족부’, ‘무능하고 한심한(김여사7, 된장녀)’, ‘공동체 의식이 부재한(개똥녀, 메르스녀8)’, ‘성(性)적으로 방종한(보슬아치9)’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삼일한’10)과 같은 물리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여성혐오가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난의 이유가 아닌 비난의 대상이 가진 속성이다. 즉 실제로 여성들이 ‘나쁜 여자’들이기 때문에 여성혐오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쁘다고 여겨지는 속성들을 가진 존재로 여성들을 범주화한 것이 여성혐오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여성을 혐오하는가? 우에노 치즈코(2010, p. 13)는 여성혐오가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남성에게는 ‘여성혐시’, 여성에게는 ‘자기혐오’의 형태로 표현된다고 했다. 앞서 언급한 여성혐오표현들의 대부분이 남성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성들이 여성혐오발언의 주요 생산자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온라인 남성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실제로 모두 남성이냐는 논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윤보라(2013, p. 36)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여성혐오표현 중 다수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

6) 여성주의자를 비하하여 부르는 낱말로, 레디앙 기사에서는 “말이 안 통하는 꼴통”이라는 뜻의 ‘꼴’과 ‘페미니스트’의 합성어라 풀이한다(“꼴페미에 의존하는 사회”, 《레디앙》, 2012.06.28.)

7) 인터넷 신조어로서 사장 부인이 자가용을 끌고 다닌다는 데에서 유래한 김여사는 운전 못하는 여성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말로 확장됐다. 운전자가 도로에서 찢찢매거나, 황당한 사고를 냈을 때 ‘김여사’라는 호칭을 쓴다(위키백과).

8) 2015년 메르스 확산 당시, 메르스 확진 환자와 함께 홍콩행 비행기를 탄 승객 중 2명의 여성이 홍콩 당국의 격리치료 요구를 거부하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라 망신시키는 된장녀”라면서 비난을 받았다. 남성혐오 사이트인 ‘메갈리아’의 등장 배경이 된 사건이다(“여혐, 여혐혐”, 《한겨레》, 2015.06.12.)

9)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보지’와 ‘벼슬아치’의 합성어로 남성들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바라는 여성들을 비하하는 경멸어이다(위키백과).

10) ‘북어와 여자는 삼일에 한 번씩 때려야 한다’는 속어로 근래 온라인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의 일부 갤러리,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에서 주로 사용되어 확산되었다.

(www.ilbe.com, 이하 일베)’의 경우 “여성임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상징적 성별을 오로지 남성으로만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커뮤니티를 남성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반면에 여성의 ‘자기혐오’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시선을 수용한 결과물에 가깝다. Tajfel과 Turner(1986)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 자존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여성혐오표현의 주도적 생산자를 여성들 자신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게다가 Perloff(2015)는 사람들이 본인이 속한 집단에 대해 비호의적인 미디어 메시지에 노출될 경우 본인의 집단적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시도하는데 사회적 약자들은 긍정적 집단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을 더 강하게 느끼므로 집단적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더 쉽게 일어난다고 했다(이은주, 박준모, 2016, p. 272에서 재인용).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여성들이 여성혐오표현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만약 수용하게 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내재화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추론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혐오 발언자는 주로 남성이라고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주목할 점은 청소년의 여성혐오경향이다. 15~35세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성평등 가치를 조사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2015, pp. 95-110)에 따르면 ‘김치녀¹¹⁾’ 등의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접촉한 경험이 대학생 집단(89.3%) 다음으로 청소년층(84.8%)에게서 높게 나왔고 ‘삼일한’과 같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표현을 접촉한 경험도 46.7%로 청소년층이 대학생(4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왔다. 더 심각한 것은 혐오표현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남자청소년 유효 응답자 중 66.7%로 남성 평균인 54.2%를 상회하여 여성혐오가 어린 연령대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성혐오 댓글을 올린 경험에 있어서도 남자청소년이 유효 응답자 중 27.9%로 다른 연령

11) 앞서 언급한 부정적 유형에 해당하는 한국 여자를 총칭하는 말로서 한국 여자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에 비해 가장 높았다.

남자청소년들이 여성혐오품토에 크게 영향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것을 재생산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여성 혐오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이다. 우선, 허위 정보에 근거한 비난과 감정적 논쟁은 사회에 소모적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그간 있었던 ‘○○녀’ 논란과 이어지는 ‘신상털기¹²⁾’에서 보듯이 여성 혐오는 개인의 인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를 예로 들자면, 그들의 주요 비난 대상은 여성, 좌파, 전라도 사람, 이주노동자 등이다¹³⁾. ‘남성들의 뭇을 약탈해간 자는 여성이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은 좌파 정권이며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좌파가 득세할수록 자신들은 점점 더 여성들에게 무언가 빼앗길 것이다’는 논리로 진보 세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다(윤보라, 2013, p. 54). ‘남성들의 뭇을 약탈해간 자’의 자리에 ‘여성’ 대신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여타 사회적 약자를 넣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혐오와 무관용의 확산은 최근의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해 냉담해지는 인식(윤인진, 2015, pp. 109-110)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성혐오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확산되어 가는 여성혐오킨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의 역할도 중요하다. 시민교육이 올바른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성혐오에 영향

12) ‘신상(身上)’과 ‘털기’의 합성어로 특정인의 신상 관련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여 찾아내어 다시 인터넷에 무차별 공개하는 사이버 테러의 일종이다(위키백과).

13) 2년 동안 일베 내 46,174개 게시물을 자동 분석한 ‘일베리포트(프로그래머 이준행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3년 5월 24일까지 일베 게시물을 분석하여 공개한 사이트)’에 따르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욕설을 제외하고 일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어는 ‘여자(4,321건)’였으며 그 다음은 ‘노무현(2,339건)’이었다.(“일베 리포트’ 등장, 일베 게시물 분석해 ‘주요 주제어’ 순위 매겨”, 《조선일보》, 2013.05.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8/2013052802673.html.)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여성혐오발언의 주요 수용자인 동시에 생산자인 남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설명력을 가졌던 현실적 집단갈등이론(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 사회지배이론(social dominance theory),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을 분석틀로 삼아 여성혐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여성혐오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현실적 집단갈등이론에 따르면 자원압박이 커질수록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커진다고 한다. 자원압박은 “원하는 자원에의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의미한다(Esses et al., 2001, p. 394). 자원의 희소성을 인지하고 그 희소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집단이 있다고 여기면 자원압박은 더 커진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청소년들이 여성혐오인식을 갖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여성을 학업 성적, 미래 일자리 등의 희소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외집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여성을 상대로 느끼는 자원압박에 따라 여성혐오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sses 등(2001, p. 394)은 자원압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지배경향성을 들었다. Pratto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지배이론에서는 사회 안정화를 위해 집단 간에 우열이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전파되면서 집단 간의 차등적 자원 분배가 정당화된다고 설명한다(Pratto et al., 1994, pp. 741-742).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사회지배경향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남성청소년들의 여성혐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를 확인할 것이다.

집단 갈등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인 사회정체성이론을 바탕으로 남성청소년들의 성별사회정체성의 수준에 따라 여성혐오인식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성별사회정체성이란 성별 집단의 일반적 특징을 상정하여 범주화하고 개인을 해당 집단과 동일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속한 성별 집단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동성 집단 내에서 유대감

이 발생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성별사회정체성의 정도에 따라 여성혐오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봄으로써 남성 집단에 대한 애착 및 유대감이 여성이라는 외집단에 대한 배제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2. 연구문제 제기와 그 의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성청소년의 여성혐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원압박은 남성청소년의 여성혐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사회지배경향성은 남성청소년의 여성혐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성별사회정체성은 남성청소년의 여성혐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기존의 여성혐오에 대한 연구가 이론 분야 및 현상 분석에 치중했던데 반해 본 연구는 실증적·인과적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혐오 개념은 문학비평 분야에서부터 활용되기 시작했다(황현산, 2016). 2000년대 초·중반 이후로 사회과학 연구에서도 그 개념이 적용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성폭력, 성매매, 음란물 등 주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언급되었다. 여성혐오가 일탈적 범죄의 차원이 아닌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2012년 일베 사이트 논란이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학, 사회학, 법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여성혐오에 대

한 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계기였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연구들이 대부분 여성혐오현상의 발생 배경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거나 여성혐오표현, 여성혐오범죄, 여성혐오인식 등의 현상 분석에 그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성혐오인식을 유발하는 원인을 탐색하여 그 요인들과 여성혐오인식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여성혐오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층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비교적 최근에 부각된 여성혐오현상에 있어서는 청소년층에 주목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5~35세를 대상으로 여성혐오를 포함한 성평등 가치 갈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청소년과 성인을 함께 조사하였기에 설문 문항에 청소년들의 주요 관심사인 학교생활, 성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해당 연구에서는 여성혐오인식의 원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본 연구는 청소년층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여성혐오인식의 영향 요인을 조사했기 때문에 청소년층의 여성혐오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는 집단 간 관계에 대해 설명력이 높은 사회지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집단 갈등 연구에서 자주 분석틀로 사용된 이론이 권위주의 성격 이론이다. 그러나 해당 이론은 집단 간 관계보다는 집단 내의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한 복종을 설명하기에 보다 적합하다. 사회지배이론은 집단 간 우열의 차이를 인정하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사회질서가 유지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따라서 집단 간 관계에서 외집단을 향한 태도인 여성혐오인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지배이론을 분석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외적타당도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남자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실제 연구는 남자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청소년층 중에서 중학생은 구직 과정에서의 여성과의 경쟁 등을 체감하는 것이 어렵기에 자원압박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제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은 입시 준비에 바쁘다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연구대상을 설정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지역의 고등학교를 편의표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갖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남녀공학고등학교와 남자고등학교 모두에서 표본을 선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배경 변인을 지닌 학생들이 모여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표본의 편중 문제를 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여성혐오인식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지 못하였다. Aronson 등 (2016, pp. 417-426)에 따르면 태도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여성혐오태도에 있어서도 이 3가지 측면을 모두 측정한다면 여성혐오인식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편견 연구들에서 태도의 3가지 차원 모두를 측정한 도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도구로는 기존의 젠더 고정관념과 구별되는 여성혐오태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ggott(2004; 안상수 등, 2015, p. 259에서 재인용)가 개발한 여성혐오인식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향후에 여성혐오태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세분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된다면 여성혐오현상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여성 혐오

‘여성혐오’는 영어의 미소지니(misogyny)를 번역한 것이다. 미소지니는 그리스어에서 ‘혐오, 증오’의 감정을 나타내는 misos(미조스)와 ‘여성’을 의미하는 gyné(기네)에 그 어원을 두고 있으므로(윤지영, 2017, p. 207) ‘여성혐오’라는 표현은 미소지니를 직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번역이 “내가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또는 “나에게는 (여성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거의 없다(임지연, 2017, p. 31에서 재인용)”는 등의 항의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번역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윤광은, 2017; 황현산, 2016).

그렇다면 과연 미소지니는 무엇인가? 미소지니로서의 여성혐오는 ‘여성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일반 개념으로서의 ‘혐오(disgust)’의 본질을 탐색하고, 여성 혐오와 연결되어 자주 언급되는 성차별주의(sexism)와 젠더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s)이 미소지니로서의 여성혐오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밝힐 것이다. 이를 통해 현 시점 우리 사회에서 ‘여성혐오’가 지칭하는 현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혐오

법철학자 Nussbaum(2004)은 혐오(disgust)가 공적 행위의 근거로써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면서 혐오의 본질을 밝히고자 노력한 바 있다. 우선 그는 “혐오에 담긴 핵심적인 사고는 자신이 오염될 것이라는 생각이며, 혐오의 감정은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부를 표현한다(2004, pp. 185-186)”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혐오의 대상은 자신의 몸 밖에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질적인 것에 대해 혐오를 가지며

그 역겨워 보이는 물질을 섭취함으로써 자신까지 오염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입 안에 고여 있는 침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지만 자신이 뱉은 침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이질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혐오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혐오의 주요 대상은 동물(쥐, 뱀, 곤충 등)과 그것의 부산물(배설물, 분비물 등)인데, 이는 우리 자신과 동물을 구분하려는 욕망과 관련 있다. 인간의 신체 분비물 중에서 눈물만이 혐오를 유발하지 않는 이유는 눈물이 유일하게 인간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눈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동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없지만 배설물, 콧물, 정액 등의 신체 분비물은 우리 자신이 지닌 동물성을 떠올리게 한다. 결국 혐오는 인간이 자신이 지닌 동물성을 숨기고자 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혐오는 부산물뿐만 아니라 부패(시체)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사람들은 부패한 것과 섞이거나 그것을 흡수한다며 자기 자신도 부패하고 죽음까지 초래될 것이라고 느낀다. 즉 혐오는 인간의 유한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감정이기도 하다. 비장애인의 장애인 혐오 역시 장애가 인간의 유한성과 취약성을 상기시키는 것에서 비롯된다. 장애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합리적인 영혼의 소유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손상될 수 있는 정신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죽기 전에도 얼마든지 신체의 일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인간의 취약성을 일깨워준다.

혐오의 대상은 동물, 동물의 부산물, 부패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 집단이 되기도 한다. 앞서 살펴봤듯이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과 섞임으로써 오염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접촉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불가촉 천민, 동성애자, 여성 등)도 오염되었다고 보고 그들을 혐오한다. 이러한 투영적 반응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나타났으며 여성혐오, 반유대주의, 동성애 혐오가 대표적 사례이다. 여성혐오에서 주요 혐오 대상은 여성의 몸이다. 여성의 출산은 동물성을 연상시킨다. 또한 여성은 정액을 받아들이고 생리를 하기 때문에 오염되고 불결하다고

여겨져 왔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혐오 이미지는 유대인에게도 적용되었는데, 반유대주의에서는 깨끗하고 건강한 독일 남성과 대비하여 유대인은 유동적이고 끈적이며 여성화된 혐오스러운 이미지로 그려진다. 혐오 이미지의 생성과 연속적 투사를 통해 혐오가 사회적 위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Nussbaum은 지적한다.

혐오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fear)과 다르며 분노(anger)와도 구분된다. 두려움은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상상할 때 생길 수 있는 반응이며, 분노는 부당함, 손상, 피해에 대한 반응이다. 두려움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에 따라, 분노는 위험을 유발한 사람에 대한 인과적 사고와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두려움과 분노는 이성 에 기초한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혐오는 실제적 위험보다는 ‘자신이 오염될 수 있다’는 신비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나 분노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분노는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하며 실제로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저항과 참여라는 목표를 향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혐오는 오염에 대한 사고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사라져버리길 바라는 도피와 방기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더 반사회적이다(Nussbaum, 2015, pp. 139-229).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Nussbaum이 통찰한 혐오라는 감정 속에는 동물성과 유한성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욕구,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감정은 종종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영되어 그들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그 대표적인 대상이 여성, 여성의 몸이었다. Nussbaum은 혐오를 ‘싫어하고 미워하다’라는 사전적 의미에 얽매어 그것을 단순히 개인의 취향, 호오(好惡)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미소지니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여성혐오를 혐오의 한 형태이자 여성비하의 의미로 좁혀서 해석했다는 점에서 ‘미소지니로서의 여성혐오’와는 차이가 있다.

2) 성차별주의

미소지니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먼저 ‘성차별주의(sexism)’를 들 수 있다. 성차별주의의 의미는 복수의 층위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우선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의 해석 방식이 있다. 미시적 차원에서의 성차별주의는 ‘어떤 개인이 성별에 근거하여 특정한 한 성이나 그 구성원을 편견의 대상으로 삼거나 차별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거시적 차원에서의 성차별주의는 ‘어느 한 성이 나머지 다른 한 성을 지배하게 만들거나 조장하는 제도와 문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회 구조적 차원의 접근 방식이다(Jones, 1997, p. 6).

Benokraitis와 Feagin(1995, pp. 39-43)은 성차별의 유형을 노골적 성차별주의(blatant sexism), 은밀한 성차별주의(covert sexism), 교묘한 성차별주의(subtle sexism)로 구분한 바 있다. 노골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가 매우 명시적이기 때문에 관찰 가능하고 명백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차별적 대우를 의미한다. 반면 은밀한 성차별주의는 고의성이 있지만 그 의도를 숨긴 채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차별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인권 의식과 평등 사상이 확산된 현대 사회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교묘한 성차별주의이다. 이것은 여성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만 일상적인 규범에 벗어나지 않으며 크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성차별로 규정하기 모호한 형태를 말한다. 교묘한 성차별주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성평등의 가치를 옹호하거나 성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졌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근절되기도 쉽지 않아 성평등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Glick과 Fiske(1996, pp. 491-492)는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라는 개념을 통해 성차별주의가 여성에 대한 비호의적 평가뿐만 아니라 호의적인 평가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통찰을 보여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유능하지 못하므로 그에 맞게 남성의 우월한 지위와 권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고 비전통적 성역할을 수행하는 여성 하위집단(페미니스트, 레즈비언, 전문직 여성 등)

에 대해 거부감이나 반감을 표하는 것이 ‘적대적 성차별주의’이다. ‘여성은 섬세하고 따뜻해서 아이를 잘 돌본다’, ‘여성은 연약하므로 특별히 보호하고 돌보아 주어야 하는 존재다’와 같이 여성을 온정적으로 보면서 보호의식이나 이성애로 접근하는 것이 ‘온정적 성차별주의’이다. 안상수 등(2007, p. 37)은 적대적 성차별주의보다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을 드러내는 노골적인 형태의 성차별이기 때문에 쉽게 경계할 수 있지만,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표면적으로는 여성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성차별로 인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들이 폭력적인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피하기 위해 온정적 성차별에 타협하거나 순응하게 되면서 불평등한 성별구조를 개선하려는 동기가 약화되고 성불평등을 유지·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은 이미나(2016)의 연구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수도권 고교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조사한 결과,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모두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을 옹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성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하였으며 심지어 그것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안상수 등(2007)의 지적대로 성불평등의 철폐에 있어서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차별주의는 해석의 다양한 층위를 갖지만 공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옹호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국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통적 성역할을 거부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비난이 가해지지만 그것에 순응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온정적 태도가 나타난다. 이것이 현재 한국사회의 여성혐오와의 차이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성혐오는 ‘비난받아 마땅한 여성’을 유형화하고 이 틀에서 대부분의 한국 여성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개인의 실제 사고 및 행동과는 별개로, 이미 ‘한국’ ‘여성’이라는 이유로 ‘김치녀’로 규정되고 비난받는다. 기존의 성차별주의보다 여성 개개인에게는 더 가혹하고 위협적일 수 있는

현상인 것이다.

3) 성편견과 젠더 고정관념

미소지니, 성차별주의와 흔히 함께 사용되는 용어가 ‘성편견’이다. 편견은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선입견에 의한 평가와 판단을 지칭하는 말로 태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태도란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평가 반응이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신념(인지), 감정(정서), 그리고 행동경향성(행동)의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안상수 외, 2015, pp. 22-23). Aronson 등 (2016, pp. 415-417)은 태도의 인지적 요소인 신념을 고정관념(stereotypes)이라 하고, 정서적 요소를 감정(emotions), 행동적 요소를 차별(discrimination)이라 일컬었다. 고정관념과 감정, 차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편견적 태도를 강화시킨다. 예를 들어 ‘여성은 대개 수학을 잘 못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은 수학을 가르치는 여교사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수학 교사를 뽑을 때 여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차별적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안상수 외, 2015, p. 23). 그러나 반대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바탕으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차별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정관념, 감정, 차별의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고정관념이 편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해왔으며 이 관계는 성편견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Deaux와 LaFance(1998, pp. 793-794)는 많은 문화권에 나름의 성별가치체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성별가치체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젠더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s)이라고 주장했다. 젠더 고정관념이란 ‘남성과 여성의 성별 집단과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이 지닌 속성들에 관한 신념(안상수 외, 2015, p. 26)’으로, 문제는 이것이 현실의 경험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지나친 단순화로 인한 부정확한 신념일 때가 많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성별 가치체계는 젠더 고정관념이라는 일련

의 신념들을 바탕으로 두고 작동하는데 젠더 고정관념은 서술적 요소와 규제적 요소를 포함한다(Kite, Deaux, & Haines, 2008; 안상수 외, 2015, p. 24에서 재인용). ‘남자는 강하며,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다’, ‘여자는 섬세하고, 온화하며 친절하다’ 등은 대표적인 젠더 고정관념으로, 각 성별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이 가진 특성을 기술하는 서술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서술적 성격의 고정관념은, ‘남자는 강해야 하며, 직장을 가져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 ‘여자는 상냥해야 하고, 이해심이 있어야 하며, 아이를 잘 돌보아야 한다’ 등의 고정관념으로 이어져 남성과 여성이 각기 해야 할 역할과 행동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범적 속성까지 띠게 한다. 젠더 고정관념의 기준과 기대에 어긋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심리적 불편감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가하는 사회적 압력이나 비난이 결국 성별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되는 것이다.

성차별주의와 성편견은 성별에 따라서 가해지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이라는 점에서 여성혐오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혐오’를 기존의 성차별주의나 성편견과 동일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여성혐오의 작동방식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차별주의와 성편견은 그것을 거부하는 여성과 순응하는 여성 각각에 대해 비난과 보상이 차별적으로 적용됐던 반면, 여성혐오는 한국 여성이라면 ‘김치녀’라는 낙인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인 성격을 띤다.

둘째, 여성혐오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있어서도 한국의 여성혐오현상의 특수성이 있다. 한국 여성 전체에 대한 가혹한 비난과 응징을 통해 기존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유지, 존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 기성세대 남성들은 진학, 구직, 승진, 위신 등 거의 대부분의 사회적 희소가치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젊은 세대 남성들은 사회적 조건의 악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가질 수 있는 희소가치의 절대적 양이 줄어들었다고 느낀다. 게다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여성을 위협적인 경쟁자로 여기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여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을 경쟁에서 배제하거나 그들

의 성취를 폄하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남성의 사회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로 여성혐오가 이용되는 것이다.

또한 여성혐오는 한국 남성들이 기존 성차별주의 하에서 느껴왔던 불만과 억압을 표출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여성혐오의 주요 대상이 ‘데이트 비용을 내지 않는’, ‘결혼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여성으로 삼고 있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에서는 옹호되어 온 내용이 여성혐오에서는 주요 비난 대상이 된다는 것은, 기존의 성차별주의와 현재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미소지니

미소지니는 문학 평론에서 주로 사용되던 개념으로서, 여성은 원래 지적으로 열등하고 감성적이며 유치하거나 관능적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여성을 비하하거나 멸시하는 태도¹⁴⁾를 의미했다. Oxford 영어사전에서는 미소지니가 ‘여성을 싫어하거나 경멸하는 것, 또는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¹⁵⁾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미소지니 개념이 문학의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그 적용이 확장될수록,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의미도 변해가고 있다.

우선 여성혐오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여성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증오하는 문화적 태도(김수진, 2016, p. 175)’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을 ‘불완전한 남성’ 또는 ‘자연의 기형’이라고 일컬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아침 첫 손님이 여자면 재수 없다’, ‘가슴이 크면 머리가 멍청하다’는 속설들, 생리를 불결하게 여기는 태도까지 모두 여성혐오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정의로는 단체 카톡방에서 남학생들끼리 여학우들의 얼굴, 몸매를 폄평하고 ‘따 먹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행태¹⁶⁾는 ‘내가 여자를 얼

14)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15) Dislike of, contempt for, or ingrained prejudice against women

16) “온라인에 숨어든 ‘여혐오’...대학 ‘단톡방’ 성희롱 심각”, 《국민일보》,

2017.05.1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48856&code=11131100&cp=nv>.

마나 좋아하는데!’라는 항명 하에 여성혐오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또한 생리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 ‘그것’ 혹은 ‘마법’이라고 돌려서 지칭하거나 생리대를 눈에 띄지 않게 가리고 다니는 모습들처럼 여성 스스로 여성의 성정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무개념한 여자들’을 앞장서서 비난하는 ‘명예 남성’화된 여성들의 모습처럼 여성들의 ‘자기 비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여성혐오를 단순히 여성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는 것으로는 현재의 ‘여혐’ 현상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우에노 치즈코는 미소지니로서의 여성혐오 연구에 천착해왔는데, 그는 젠더 불평등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여성혐오가 작동한다고 본다. 즉 여성혐오를 ‘여성을 미워한다’는 정서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해석하는데 남성지배의 사회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여성을 객체화, 대상화, 타자화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남성중심적 사회 구조를 지속시켜나가려면 남성들 간의 유대(호모소셜리티homosociality)가 필요하고 성적 주체인 남성들 간에 서로를 인정한다는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성적 주체 간에 서로를 객체화하는 성적 시선(호모섹슈얼homosexuality)은 남성들 간의 유대를 깰 수 있는 위험한 것임과 동시에 성적 객체화 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호모포비아homophobia)를 불러온다. 호모소셜한 남성이 자신의 성적 주체성을 확인하고 성적 주체 간에 상호 승인과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용하는 장치가 바로 ‘여성을 성적 객체화’하는 것이다(우에노 치즈코, 2010, pp. 12-37).

우에노 치즈코는 여성혐오가 여성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때는 ‘자기혐오’의 형태를 띤다고 보았다. 젠더 불평등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평가 기준은 남성의 시선이고 여성 역시 이러한 남성의 시선을 내면화하면서 남성들의 여성혐오를 재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자기혐오를 피하는 방법은 자신은 예외적 여자가 되어 자기 이외의 여성을 타자화함으로써 여성혐오를 전가하는 것인데, 남성들로부터 인정받는 ‘명예 남성’화 되는 방식과 자신을 여성이라는 범주에서 이탈시켜 남성의 시선으로 평가당하

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전략 모두 자신은 자기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여성혐오를 재생산하게 된다(우에노 치즈코, 2010, pp. 214-266).

우에노 치즈코가 제시하는 여성혐오는 그것이 남성과 여성에게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며 여성을 남성들의 지배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성적으로 객체화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여성혐오의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면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혐오현상의 핵심을 정확히 지적하기에는 폭넓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김치녀’를 비롯하여 여성을 지칭하는 각종 경멸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것은 최근 몇 년 간의 일이다. 박권일(2014)은 여성혐오표현의 주요 생산자가 ‘젊은 예비역 남성’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청년 세대가 불안정한 경제적 여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증가로 인해 기존에는 약자였으나 빠르게 경쟁자로 성장한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공격성을 발현시킨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한국사회의 여성혐오현상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의 심화’를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여성혐오의 주요 대상이 ‘데이트 비용을 내지 않는’, ‘결혼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군가산점을 폐지시킨’ 여성으로 삼고 있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윤지영(2017, pp. 209-212)의 여성혐오에 대한 정의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는 여성혐오를 ‘여성에 대한 중층적 예측화 원리들을 강화하는 감정 기제이자 인식 원리들’이라고 정의 내리면서 여성혐오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여성을 숭배와 낙인의 이분법적 이미지로 구분하는 것, 여성의 신체를 계량화·세분화하여 평가하는 것, 여성을 성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객체화하는 것, 능력 있는 여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 전형적이고 규범적인 남성성을 잃는 것(예를 들어 동성애, 경제적 실패 등)에 대한 공포 등이 거기에 해당하는데 그 중 통찰력이 돋보이는 분석은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이다. 대표적인 여성혐오표현이 여성을 열등 가치화하여 낙인찍는 이름들(김치녀, 된장녀, 김여사, 보슬아치 등)인데 이것에 정반대 지점에는 ‘개념녀’

로 대표되는 여성을 우등 가치화하여 숭배하는 이름이 있다. 이것은 남성적 시선에 의해 여성들을 승인할 수 있는 범주와 응징당해야 할 범주로 일방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통해 여성들이 조금만 ‘개념’을 가지고 처신하면 언제든지 숭배의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제공하여 여성들 간의 분열까지 초래한다. 결국 여성 멸시와 비하는 여성혐오의 하위 개념이고 여성에 대한 평가와 낙인의 과정을 통해 여성들을 범주화하고 낙인찍힌 여성들에 대한 응징을 암시하여 결국 남성지배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이데올로기가 여성혐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점에서 윤지영의 정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현실적 집단갈등이론

1)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

현실적 집단갈등이론은 제한된 자원에 대한 집단 간 경쟁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유발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즉 일자리, 복지서비스, 명성 등의 가치 있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기에 한 집단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들을 점유하게 되면 다른 집단은 그 자원을 소유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양립 불가능한 이익을 두고 집단 간에 경쟁을 하게 됨에 따라 상대 집단에 대한 적개심과 부정적 평가가 동반되고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내집단 내에 공유됨으로써 외집단에 대한 편견이 발생하고 외집단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지게 된다. 편견과 낮은 수용은 궁극적으로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Esses et al., 1998, p. 701; Forsyth, 2010, pp. 427-428).

현실적 집단갈등이론의 관점에서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연구가 많은데 그 중 20세기 초 미국 이민자들 간의 인종편견에 대한 Dollard(1938, pp. 25-26)의 연구가 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독일 이민자들이 미국의 어떤 마을에 들어왔을 때 마을 주민들은 그들에게 큰

적대감이 없었지만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독일인에 대한 편견이 만연하게 되었고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대했다. “독일인들을 향한 공격이 용인된 이유는 그 지역 목자재 공장의 일거리와 지위를 두고 일어나는 경쟁 때문이었다.”라고 Dollard는 기록했다.

미국에 온 중국 이민자들을 향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도 경쟁 가능성에 따라 달라졌다. 19세기 미국 대륙횡단철도건설에 중국 노동자들이 참여했을 때 중국인들에 대한 평가는 ‘근면하고, 법을 잘 지키며, 분별 있는’ 사람들로 묘사되었는데 그 당시 철도건설은 백인들이 꺼리는 일이었기에 두 집단 간에 경쟁 자체가 배제된 구조였다. 그러나 철도공사가 끝나고 남북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이 귀향하여 구직난이 발생하자 중국인들에 대한 평가는 ‘범죄자적이고 교활하며 멍청하다’로 바뀌었다(Aronson et al., 2016, p. 441).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경쟁이 격화될 때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확산되는 현상은 Olzak(1986), Wimmer(1997)의 연구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쟁으로 인한 부정적 태도의 발생은 서로 다른 인종 집단 간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Sherif(1988)의 로버스 케이브(Robbers Cave) 실험은 이를 잘 보여준다. 연구자들은 중류층 개신교 가정 출신의 11세 소년들을 두 집단으로 무선 할당하여 그들을 서로 떨어진 곳에서 머무르게 하면서 집단 내에서 하이킹, 수영, 촌극 등 협동적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그 후 매력적인 경품을 걸고 야구, 줄다리기, 풋볼 등을 통해 두 집단을 경쟁하게 만들자 집단 간의 적대감은 점점 커졌다. 급기야 그들은 서로의 오두막을 습격하기까지 하는 등 갈등은 증폭되었으며 이후에 더 이상 경쟁적 게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적대감은 지속되었다. 즉 경기에서 승리한 집단에게만 주는 상은 제한된 자원이며 이것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될 때 서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발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외집단으로 인해 자신들의 몫을 빼앗긴다는 인식을 ‘현실적 집단갈등인식’이라고 명명하였다. 여성혐오 역시 여성을 위협적인 경쟁상대로 여기는 현실적 집단갈등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2) 경쟁의 심화

현실적 집단갈등이론의 핵심은 이질적 집단들 사이에서 항상 편견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된 자원을 두고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들 사이에, 그리고 그들 간의 경쟁이 격화될 때 편견과 갈등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Coenders 등(2003, pp. 22-23)은 다문화사회에서 원주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민족을 차별하는 것이 이주민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비교적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단순노동자들에게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연구로는 오영삼과 노은영(2014, p. 204)이 일용직군이 무직군, 상용직군, 고용주군보다 낮은 수준의 다문화 수용태도를 보였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태도도 낮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현실적 갈등인식에 의해 편견이 나타나는 경우는 외집단이 자신과 유사한 직무 관련 성격특성과 능력을 지녔다고 여길 때였고,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영역에서 외집단과의 유사성을 평가한 후에는 편견의 강도가 약해졌다는 연구결과(Zárate et al., 2004, pp. 103-104)도 있다.

그런데 여성혐오와 관련해서는 앞선 연구결과와 충돌하는 것 같은 지점이 있다. 여성혐오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경쟁에서 소외된 계층의 남성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정¹⁷⁾과는 달리, 중상 이상의 경제수준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그 이하의 경제수준에 있는 남성에게 비해서 더 높은 여성혐오인식 수준을 나타냈다. 여성혐오 글을 올려본 경험에 있어서는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높고, 장래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집단으로 분류된 군집에서 유의하게 더 많았다. 여성혐오표현에 공감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혼인상태, 경제 수준, 학력, 고용형태, 직종, 장래 전망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안상수 외, 2015, pp. 102-110).

17) “사회악이 된 일배, 그들은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http://blog.daum.net/drpyo/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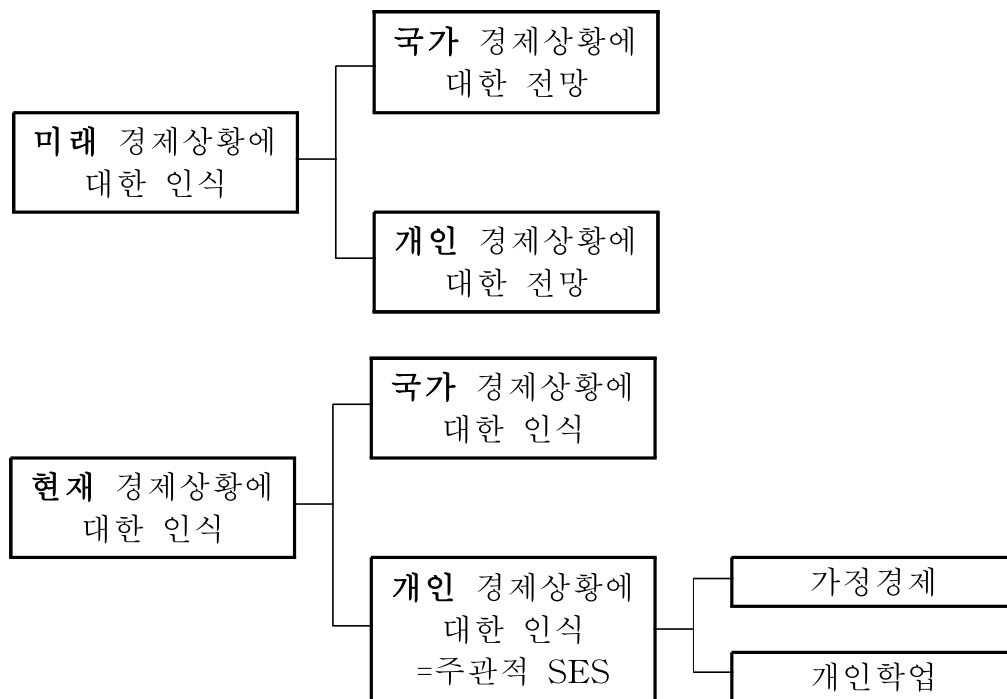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가 현실적 집단갈등이론의 설명과 상충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현실적 갈등이론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저소득,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이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고 그들에게서 이주민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배제하려는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다르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여성이 유리천장을 극복하는 사례들이 미디어를 통해 크게 부각되면서 오히려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며 더 높은 지위까지 진출하려는 의지가 강한 남성들에게 여성은 위협적인 경쟁 상대일 수 있다.

Esses 등(1998, p. 701)은 현실적 집단갈등이론의 전제를 다음의 3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집단갈등과 위협은 자원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거나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한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 둘째, 집단갈등과 위협이 커질수록 내집단은 외집단에 대해 더 강한 적개심과 분노를 표출한다. 셋째, 경쟁이 발생할 때 근접성과 접촉은 집단 간의 적개심을 낮추기보다는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당면한 상황을 치열한 경쟁 상태로 인식하면서 자신이 가진 자원을 이용해 더 높은 지위를 갖기를 바라며 현재 여성들의 지위가 이미 높아졌다고 인식하는 남성들에게서 여성혐오인식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지각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여성혐오인식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수를 보다 세부적으로 나눠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미래와 현재로 구분하였다. 미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이다. 이 ‘전망’을 다시 국가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과 개인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으로 나누었다. 희소 자원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역량과 여건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여건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역시 국가 차원과 개인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현재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 사

회경제적 지위로 볼 수 있다. 연구대상이 고등학생이기에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소로 가정의 경제적 형편과 개인의 학업 성적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개념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이 세분화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개념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우선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미래 경제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할수록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경쟁자인 여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반면에 현재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연구대상이 남자고등학생인데 그들이 희소가치를 두고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것은 사회에 진출한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현재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즉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여성혐오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았다. 앞서 추정하였듯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앞으로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기 바라는 계층에서 여성이 더 위협적인 경쟁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의 경제적 형편과 개인의 학업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해 볼 것이다.

3. 사회지배이론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설명할 때 자주 거론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권위주의 성격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결과를 보면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유태인, 흑인, 미국 원주민,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AIDS 환자 등 소수집단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dorno et al., 1950; Noonan et al., 1970; Cunningham et al., 1991; Altemeyer, 1998; Whitley, Lee, 2000). 국내의 연구로는 권위주의 성격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호남인, 빈곤계층,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노인, 이주민에 대한 호감이 적거나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민경환, 1989; 최현주, 정진경, 1996; 송관재 외, 2001; 서영석 외, 2006; 신학진, 2013).

권위주의 성격은 강자 앞에서 약한 모습으로 권력과 권위에 무조건 맹종하고 순종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러한 권력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김재신, 한성열, 2004, p. 100). 그렇기에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권위주의 성격이 자주 거론되었고 그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그러나 권위주의 성격은 내집단의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한 복종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단 간 관계에서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기에는 사회지배경향성이 더 적절할 수 있다(양계민, 2009, p. 73).

사회지배경향성은 사회지배이론에서 나온 개념이다. 사회지배이론에서

는 사회가 집단 간에 우열이 있다는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당화하여 사람들이 그 신화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렇게 제도화된 불평등을 통해 사회 안정을 지켜나간다고 본다. 이때 개개인의 사회지배경향성 차이에 따라 이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사회지배경향성이란 자신이 속한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외집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의 정도이다(Pratto et al., 1994, pp. 741-742). Pratto 등(1994)은 사회지배경향성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국내에서도 사회지배경향성이 높게 나타나는 이들이 외국인 지원 정책에 대해 더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원숙연, 2011). 따라서 여성을 열등하게 보고 멸시하는 감정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여성혐오인식에도 사회지배경향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 추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배경향성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할 것이다.

4. 사회정체성이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 이론으로 사회정체성이론을 들 수 있다. 사회정체성이론을 제안한 Tajfel(1981, p. 255)에 따르면 사회정체성이란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집단의 일원이라는 지식과 그러한 멤버십에 부여되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로부터 생기는 개인의 자기 개념의 일부’이다. 즉 자기 개념의 두 단면들 가운데, 개인의 성격이나 가치관과 같은 개인정체성보다는 자기가 속해 있다고 지각하는 사회적 범주들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정체성에 주목하여 집단 간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이론이다.

사회정체성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사회범주화에 기초한다. 사람들은 사회집단의 전형적 특징을 상정하여 그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적용한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범주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집단을 자신의 확장으로 받아들이면서 사회정체

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Forsyth(2010, p. 76)는 이러한 사회적 동일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속 집단과의 유대감을 갖게 만들고 그 집단의 특성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집단에 소속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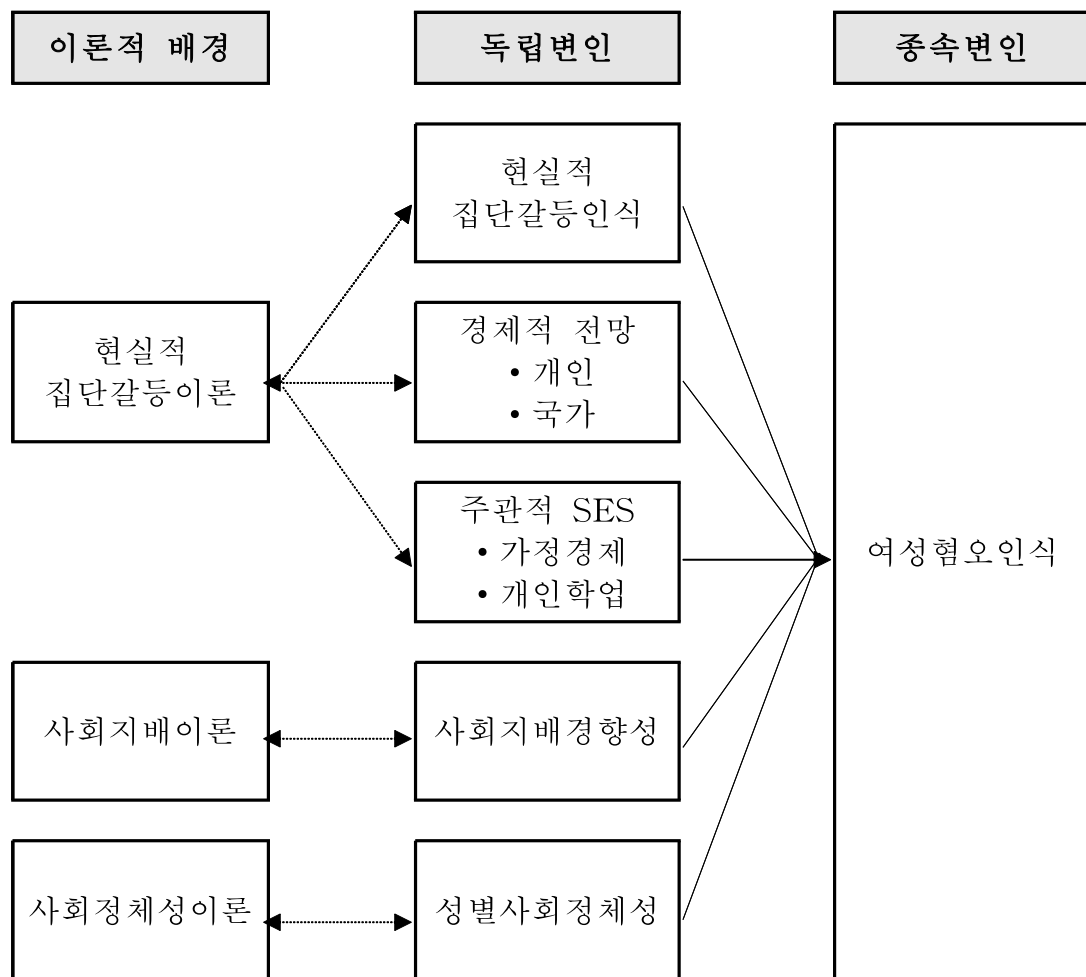
사회정체성이론의 기본적 가정은 인간은 자존감을 유지하거나 높이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을 특정한 집단의 성원으로 범주화하여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이 긍정적으로 차별화되거나 독특하다고 지각될 때 긍정적 사회정체성은 획득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된 외집단을 손상시켜서 내집단을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긍정적 자존감을 획득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나타난다(한덕웅, 2002, pp. 282-285). Tajfel(1981, pp. 268-276)은 최소 집단 간 상황¹⁸⁾에서조차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내집단 편애의 경향이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밝혔고, 국내 연구로는 박군석과 한덕웅(2004)이 높은 사회정체성 조건에서 내집단 편애가 심한 방향으로 자원을 분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경제성장률이 정체되어 있고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경제적 조건 속에서 현재 젊은이들이 과거 세대와 같은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성취 수준도 점차 높아지면서 젊은 남성들은 자존감에 더 큰 위협을 느낀다. 이때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경쟁 관계에 있는 외집단인 여성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다. 즉 여성혐오인식을 통해 남성들은 사회적 조건 속에서 하락한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을 바탕으로 성별사회정체성이 강할수록 여성혐오인식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해 볼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들을 바탕으로 추출한 독립변인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우선 현실적 집단갈등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적 집단갈등인

18) Tajfel과 Turner가 집단 갈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개발한 연구절차로서 익명적이고 관련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일시적 집단의 창조 상황을 말한다(Forsyth, 2010, p. 75).

식,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여성혐오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지배이론을 바탕으로 집단 간 우열을 인정하고 외집단에 대한 지배 욕구를 뜻하는 사회지배경향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체성이론을 바탕으로 동성 집단에 대한 동질감 및 소속에 대한 만족감을 뜻하는 성별사회정체성 개념을 이끌어 내어 여성혐오인식에 대한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 이론적 배경과 연구모델의 관계

5. 선행연구 검토

1) 여성혐오 관련 연구

우리나라에서 여성혐오에 대해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2년 우에노 치즈코의 저서인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가 번역되고 비슷한 시기에 온라인 극우 사이트인 ‘일베’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부터이다. 이전까지는 여성혐오가 성폭력의 일종으로 인식되어 미분화된 상태였다면 이 시기를 지나면서 여성혐오 개념이 정립되어 보다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주로 여성혐오표현이나 여성혐오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김수아와 허다운(2014)은 구체적인 여성혐오표현의 종류와 양태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였다. 혐오표현들이 여성에 대한 편견을 기정사실화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여 여성의 인격과 주체성을 부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여성들에게 심리적 충격과 위축감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공간을 포함한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현과 정우일(2013)은 인터넷 신상털기가 온라인에서 하나의 놀이 형태로 확산되면서 그 피해자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 피해자 중 다수가 여성이라는 것을 밝혔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연구한 바 있다. 김수아(2015)의 연구는 온라인상의 여성혐오표현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유형화하였다. 여성혐오표현의 공격 대상이 특정한 여성 개인인 경우도 많지만 갈수록 ‘김치녀’와 같이 한국 여성 전체를 일반화하여 비하·공격하는 형태를 띠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혐오의 유형을 외모, 여성성, 나이, 능력 비하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신체적·성적 폭력을 지칭하는 단어가 적극 생산되고 있음을 밝혔다.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조사 연구와 더불어 여성혐오현상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정대훈(2013)은 일베 분석을 통해 신자유주의 시대에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인터넷 상에서나마 관계

맷음을 원하는 이들의 인정 투쟁으로 여성혐오의 원인을 파악했다. 여러 연구들에서 신자유주의적 사회 질서를 여성혐오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한윤형(2013)은 무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손상된 자존감과 피해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들보다 더 약자인 여성들을 단죄하고 그들에게 폭력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박권일(2014)은 경제위기로 인한 자원 압박과 여성의 지위 상승이 남성 청년들에게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켜 여성을 목표로 삼아 적대적 공격을 펼치고 있다는 것으로 여성혐오의 원인을 진단하였다. 이 시기 연구들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혐오의 원인을 분석하는 통찰력을 보여주었지만 실증적 연구가 아니라는 한계를 지녔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은 여성혐오현상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도 했지만 학문적으로도 여성혐오범죄에 대해 다차원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다. 최순양(2016)은 강남역 살인 사건을 정신질환증에 의한 범죄가 아닌,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인식의 정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했다. 그는 기존의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시각과 제도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폭력을 은폐하여 결국 강남역 살인 사건까지 초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승재현(2016) 역시 해당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보고 혐오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비교법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혐오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승현(2016)은 여성혐오를 포함한 혐오표현을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보았다. 혐오표현은 소수집단을 표적으로 하여 그들이 일상적·제도적·구조적으로 오랫동안 받아온 차별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는 점, 표적집단 구성원들의 인격을 침해한다는 점, 그들이 사회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고 토론 문화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최근에는 여성혐오현상에 대한 연구가 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은주와 박준모(2016)는 미디어와 관련하여 성별과 여성혐오발언 노출 빈도에 따라 여성혐오발언에 대한 인식 및 해당 발언에 대한 규제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여성혐오발언에 노출된 빈도가 많을수록, 그것이 다른 남성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다고 인식할수록 혐오발언 규제를 더 강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밝혔다. 여성혐오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온 문학과 영화 등의 문화 영역에서도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여 여성혐오에 대한 논의가 보다 깊이 있게 진행되는 등 이전에 비해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황미요조, 2015; 정인경, 2016; 임지연, 2017). 이는 그만큼 여성혐오현상의 존재와 확산을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최근 여성혐오 논의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메갈리아’로 대변되는 남성 혐오 논쟁이다. 일베 등 남성 중심의 극우 사이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혐오 표현을 그대로 남성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의 ‘미러링’을 비롯해 남성 혐오 표현뿐만 아니라 때로는 극우적 발언도 올라오는 사이트가 메갈리아이다. 이 메갈리아에 대한 입장은 학계에서 엇갈린다. 정희진(2015, 2016)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혐오(멸시, 비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약자인 여성이 남성을 멸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단지 여성들은 남성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으며 여성들은 여성혐오를 혐오할 뿐이다. 오랫동안 일방적 차별만이 이루어진 성불평등 사회에서 여성의 분노를 남성혐오라고 해석하는 것은 현존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메갈리아는 일베라는 폭력적 패권 집단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유일한 당사자라는 논쟁적 주장을 펼친다. 윤지영(2015) 역시 남성중심적 사회 질서 속에서 메갈리아의 표현 방식은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분노, 여성혐오에 대한 분노, 자기파괴적 분노를 표출하는 급진적 정치화라고 해석한다. 반면에 천정환(2016)은 메갈리아에서 표출되는 분노와 분리주의를 이해하지만 그러한 급진적 페미니즘은 대다수의 남성은 물론이거니와 새롭게 등장한 남성 페미니스트들까지 등 돌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음을 지적한다. 대신에 그는 남성성의 위기

와 (과장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알파걸의 등장으로 인한 남성들의 피해 의식,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의 박탈감을 이해하고 남성과 여성이 연대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여성혐오의 다차원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성불평등 사회구조를 먼저 인식하자는 주장, 여성과 남성이 연대하여 현재의 불평등을 개선해나가자는 주장 등은 청소년을 포함한 남성 청년들의 실제 인식 수준과는 거리가 있는 당위적 차원의 논의라는 한계가 있다. 실제 청소년들은 일베와 메갈리아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성혐오와 남성혐오 현상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는 상대 성별집단의 잘못만으로 인식하는 등 피상적 이해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해당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담론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그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다. 청소년들이 실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다면 현재의 여성혐오 현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해석과 대응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2)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연구

청소년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국내 문헌을 살펴보면 우선 양계민(2009)의 연구가 있다.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자녀, 새터민, 조선족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권위주의경향성, 한민족정체성, 현실갈등인식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실갈등인식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한민족정체성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고등학생의 경우 한민족정체성이 인지와 정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행동적 차원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등학생 단계에서는 인지와 정서적으로 수용성이 높더라도 행동으로 연결되기 싫지 않기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역할이 크다는 시민교육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단, 인지와 정서적 수용성이 높은 것이 행동적 수용성과 직결되지 않기에 행동적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강현선과 김현주(2016)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동성애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의 권위주의적 성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동성애 태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자녀의 동성애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거나 자율적일수록 자녀의 동성애 태도는 긍정적이었다. 자녀의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어머니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를 가진 경우 권위주의 성격의 완전매개효과가 발견되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 때 자녀의 권위주의 성격이 낮고 그로 인해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회귀분석에서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와 권위주의 성격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동성애 태도 간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수록 소수집단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지만(이양섭, 1995; 박준학, 2004)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매개로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원숙연(2011)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의 영향 요인을 연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회적 가치였다. 즉 평등주의를 지지할수록, 사회지배가치를 지지하지 않을수록, 인도주의를 지지할수록 외국인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지점은 개인의 미래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인식할수록 외국인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지만 국가의 현재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외국인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를 국가의 현재 경제상황이 좋다는 것이 정부가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외국인에게 가는 자원이 많아질 것에 대한 우려와 불만으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변수들이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이 아닌, 여성혐오인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남자고등학생의 여성혐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세 개의 연구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그에 답하기 위한 세부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자원압박은 남성청소년의 여성혐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현실적 집단갈등이론에 따르면 자원압박이 커질수록 경쟁 관계에 있는 외집단에 대한 배제는 강하게 나타난다. 자원압박을 심화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여 <가설 1>, <가설 2>,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남자고등학생의 여성에 대한 현실적 집단갈등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외집단이 있고, 그 집단이 위협적일수록, 그리고 그 경쟁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인식할수록 자원압박은 더 커진다(Esses et al., 2001, p. 394). 이때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외집단으로 인해 자신들의 몫을 빼앗긴다는 인식이 ‘현실적 집단갈등인식’이다. 현실적 집단갈등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을 위협적인 경쟁상대로 여기고 자원압박이 커지므로 여성혐오인식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가설 2> 남자고등학생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일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자원을 희소하다고 여기면 자원압박을 더 크게 느낀다. 그런데 일자리, 소득, 사회복지와 같은 사회적 자원은 고등학생에게는 미래에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므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에 따라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즉 앞으로의 경제적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면 미래의 사회적 자원은 더욱 희소해질 것이기에 자원압박을 크게 느끼게 되어 여성혐오인식이 강해질 것이다. 단, 경제적 상황은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달리 전망할 수 있으므로 <가설 2>의 하위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가설 2-1>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가설 2-2>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현실적 집단갈등이론의 중요한 전제 중 하나가 제한된 자원을 두고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을 위협적인 경쟁상대로 여기는 계층은 누구인가?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알파걸로 대변되는 능력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 부각되면서 스스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여기면서 그 계층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여성이 더 위협적인 경쟁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설 3>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가설 3> 남자고등학생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다양하지만 고등학생의 주관적 지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의 경제적 위치와 자신의 학업 수준을 선정하였으며 <가설 3>의 하위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1> 가정의 경제적 위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가설 3-2> 자신의 학업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사회지배경향성은 남성청소년의 여성혐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집단 간의 우열을 인정하고 외집단에 대해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다면 여성에 대한 평가와 낙인의 과정을 거치는 여성혐오인식 역시 나타날 것이다. 연구문제 2를 구체화시킨 <가설 4>는 다음과 같다.

<가설 4> 남자고등학생의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연구문제 3. 성별사회정체성은 남성청소년의 여성혐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적 범주화 및 동일시 과정을 거쳐 형성한 성별사회정체성은,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별 집단에 대한 긍정적 가치 부여와 유대감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외집단을 손상시킴으로써 내집단에 긍정적 의미 부여가 이뤄지기도 하므로 남자고등학생들의 성별사회정체성이 강할수록 여성혐오인식 역시 강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 5>는 다음과 같다.

<가설 5> 남자고등학생의 성별사회정체성이 강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연령에 따른 인식론적 사고 수준의 차이 때문이다. Kuhn과 Dean(2004, pp. 270-272)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취학 연령 이전의 아동은 주장을 현실 그 자체로 인식하는 실체주의적 관점을 지니다가 점차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는 명확한 사실로서 주장을 인식하는 절대주의적 관점을 취하게 된다고 한다. 청소년기에는 주장을 인식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사선택된 하나의 의견으로서 받아들이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갖게 된다. Kuhn과 Dean은 교육자들이 학생들에게 상대주의적 관점을 넘어서 적절한 증거들을 가지고 주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주의적 관점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아동기까지는 타인의 주장을 수용하는 단계라면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주장의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고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통해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기에 가까운 고등학생 시기에 갖는 여성혐오인식은 막연한 감정적 표출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위치한 현실의 토대 위에서 스스로 내린 평가의 결과로서 갖게 된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청소년들의 여성혐오인식이 어떤 요인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바탕을 배경으로 하여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 중에서 입시 준비에 바쁜 고등학교 3학년은 제외하고 1, 2학년 남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총 4개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기에 지역적 편중에서 오는 대표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북동부, 북서부, 서부 등 서로 다른 지역에서 연구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표본을 추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일반계 남자고등학교와 남녀공학고등학교 각 2개교씩을 선정하여 학교유형에 있어서의 편중성 문제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 총 4개교의 고 1, 2학년 남학생 52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에 동의한 학생은 504명이었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2명을 제외하고 총 492명의 표본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 중 고등학교 1학년은 216명(43.9%), 2학년은 276명(56.1%)이었으며, 서울 거주자는 83명(16.9%), 경기 거주자는 409명(83.1%)이었다. 남녀공학고등학교 재학생은 146명(29.7%), 남자고등학교 재학생은 356명(70.6%)이었고, 남녀공학중학교 출신 학생은 387명(78.7%), 남자중학교 출신 학생은 99명(20.4%)이었다. 여자형제가 있는 학생은 245명(49.8%), 여자형제가 없는 학생은 246명(50.0%)이었다. 주관적으로 판단한 가정의 경제적 위치를 상류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8명(3.7%), 중류층 중 상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88명(17.9%), 중류층 중 중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61명(53.0%), 중류층 중 하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13명(23.0%), 하류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2명(2.4%)이었다. 자신의 학업수준을 주관적으로 상위권으로 평가한 학생은 60명(11.9%), 중상위권으로 평가한 학생은 114명(23.2%), 중중위권으로 평가한 학생은 131명(26.6%), 중하위권으로 평가한 학생은 134명(27.2%), 하위권으로 평가한 학생은 53명(10.8%)이었다([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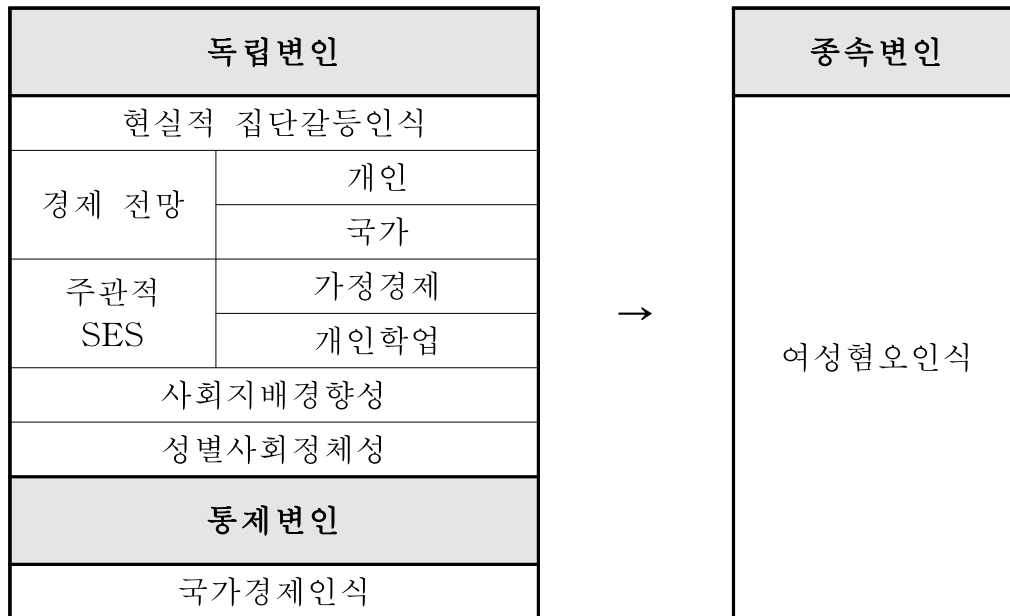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거주지	서울	83	16.9
	경기	409	83.1
학년	고등학교 1학년	216	43.9
	고등학교 2학년	276	56.1
현재 재학 중인 고교 유형	남녀공학	146	29.7
	남고	346	70.3
과거 재학했던 중학교 유형	남녀공학	387	78.7
	남중	99	20.1
	결측값	6	1.2
여자형제 유무	여자형제 있음	245	49.8
	여자형제 없음	246	50.0
	결측값	1	0.2
주관적 가정의 경제적 위치	상	60	12.2
	중상	114	23.2
	중중	131	26.6
	중하	134	27.2
	하	53	10.8
주관적 개인의 학업 수준	상	18	3.7
	중상	88	17.9
	중중	261	53.0
	중하	113	23.0
	하	12	2.4
합계		492	100

3. 연구변인 및 측정도구

본 연구의 주제는 ‘남자고등학생의 여성혐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이다. 따라서 종속변인은 남자고등학생의 여성혐오인식이다. 독립변인은 현실적 집단갈등인식, 개인 및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한 주관적인 가정의 경제적 위치와 개인의 학업 수준, 사회지배경향성, 성별사회정체성 등이며 통제변인은 국가의 현재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분석모형

1) 종속변인

<가설 1> ~ <가설 5>의 종속변인은 여성혐오인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윤지영(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혐오를 ‘여성에 대한 평가와 낙인의 과정을 통해 여성들을 부정적으로 범주화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성혐오인식은 이러한 여성혐오가 반영된 인식 수준으로서 이를 측정하기 위해 Piggott(2004; 안상수 등, 2015, p. 259에서 재인용)가 개발한 ‘미소지니 척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내린 여성혐오인식 개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여자들은 일을 할 때 생기는 문제를 자신들만 겪는 것처럼 과장해서 부풀린다’, ‘여자들은 남자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이익을 얻으려 한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을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여자들은 공정한 경쟁에서 졌을 때조차 마치 성차별 때문인 것처럼 불평을 늘어놓는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나는 여자들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여자들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어떤 모임을 현명하게 이끌어가려면 대부분 남자들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 등 총 8개 문항을 이용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부록 p. 68 참조).

2) 독립변인

(1) 현실적 집단갈등인식

<가설 1>의 독립변인은 현실적 집단갈등인식이다. 현실적 집단갈등인식이란 ‘현실적 집단갈등이론의 관점에서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EUMC(European Monitoring Center for Racism and Xenophobia) 보고서의 ‘이주로 인한 위협’ 측정문항을 참고하였다(Coenders et al., 2003, p. 5). 해당 문항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이민자들은 그들이 기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등이었다. 이를 참고하여 구직 과정과 직장 생활에서의 보상 등을 한정된 자원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주제가 여성혐오인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한정된 자원을 두고 여성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이 정당한 몫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측정문항은 3개로 다음과 같다;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는 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취업에 불리하다’, ‘군 가산점 제도를 없앤 것은 부당하다’, ‘직장에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힘든 일을 맡는데 비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지 않다’(부록 p. 67 참조).

또한 연구대상이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성적,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학교생활 내에서의 희소가치들을 포함하여 현실적 집단갈등인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해당 문항은 다음과 같다; ‘여학생들로 인해 남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잘 받기가 어렵다’, ‘교사들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관대하게 대한다’, ‘학교생활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본다’(부록 p. 66참조). 이와 같이 총 6개 문항을 통해 경제활동과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현실적 집단갈등인식을 측정하였고 5점 척도를 이용했다.

(2)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

<가설 2>의 독립변인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이다. 고등학생들이 획득을 목표로 하는 자원 중에서 일자리의 경우 앞으로의 경제적 상황과 직결된다. 자신을 둘러싼 경제적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면 자원압박을 더 크게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원숙연, 2011, p. 568). 따라서 경제적 상황에 대해 낙관적/비관적 전망 여부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단 경제적 전망이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설 2-1>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이, <가설 2-2>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이 독립변인으로 설정되었다.

Espenshade와 Hempstead(1996, p. 559)의 연구를 참고하여 각 1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은 ‘귀하는 자신의 미래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이용하여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부록 p. 70 참조),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은 ‘내가 취업할 시기의 한국의 경제적 상황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라는 문항을 이용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부록 p. 67 참조).

(3)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가설 3>의 독립변인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여성혐오와의 관계에 대해 기존의 연구 결과는 다소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 안상수 등(2015, pp. 99-110)에 따르면 혐오표현에 공감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경제 수준, 학력, 고용 형태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여성혐오 댓글을 올린 경험에 있어서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

은 집단에 비해 여성혐오 댓글을 올린 경험이 유의하게 많았다. 이러한 상반되는 연구 결과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 및 성공이 미디어를 통해 부각되면서 자원 획득의 열망이 높은 남성들에게 여성이 보다 위협적인 경쟁자로 인식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스스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여기는 남성들에게서 여성에 대해 느끼는 자원압박이 크게 나타날 것이며 여성혐오인식도 강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가설 3-1>에서는 주관적인 가정의 경제적 위치, <가설 3-2>에서는 주관적인 자신의 학업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양계민(2010, p. 117), 황정미 등(2007, p. 20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응답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가정의 경제적 위치(‘귀하가 스스로 평가하는 가정형편은 어디에 속합니까?’)와 자신의 학업 수준(‘전국의 같은 학년 학생들과 비교해서 귀하가 스스로 평가하는 학업 수준은 어디에 속합니까?’)을 각 1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부록 p. 70 참조).

(4) 사회지배경향성

<가설 4>의 독립변인은 사회지배경향성이다. 사회지배경향성이란 ‘자신이 속한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외집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의 정도’를 말한다(Pratto et al., 1994, pp. 741-742). 이를 측정하기 위해 Pratto 등(1994, p. 760)이 개발한 14개의 문항을 활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문항을 제외하고 8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다른 집단의 사람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 ‘당신이 속한 집단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때로는 다른 집단에 강압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우월한 집단은 열등한 집단을 지배해야 한다’, ‘출세를 위해서 때로는 다른 집단을 짓밟을 필요도 있다’,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사회문제가 덜 발생했을 것이다’, ‘어떤 집단은 높은 위치에 있고 다른 집단은 밑바닥에 있는 것은 아마도 좋은 일이다’, ‘열등한 집단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 ‘때때로 어떤 집단들은 집 밖으로 나오

지 못하게 해야 한다’ 등이며 모두 5점 척도를 사용했다(부록 p. 67 참조).

(5) 성별사회정체성

<가설 5>의 독립변인은 성별사회정체성이다. 사회정체성의 형성에서 핵심적인 과정은 사회범주화와 사회적 동일시이며 이 수준이 높아질수록 소속에 대한 만족감과 자긍심, 집단에 대한 긍정적 평가, 소속에 대한 의미부여, 집단 특성과의 동일시, 집단 구성원들과의 유대감 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Forsyth, 2010, pp. 76-77). 성별사회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금미 등(2003, p. 37)과 홍기원 등(2003, p. 25)이 개발한 척도들 중에서 위에 해당하는 총 6개의 문항을 선별하였다; ‘나는 내가 남성인 것이 좋다’, ‘나는 내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치가 높지 못하다고 느낀다’, ‘내가 남성이라는 사실이 나에게서는 중요하다’, ‘나는 내 자신이 남자답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남성들과 연대감을 지니고 있다’. 모두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세 번째 문항만 역코딩하였다(부록 p. 68 참조).

3) 통제변인

여성혐오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인으로 ‘국가의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설정하였다. 이미 독립변인으로 ‘개인 및 국가 차원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을 설정한 바 있는데, 이는 경제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할수록 자원 압박을 크게 느낀다는 현실적 집단갈등이론의 배경 하에 설정된 변인이다. 원숙연(2009, p. 577)에 따르면 국가의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도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국가의 경제상황이 좋다는 것이 외국인에게 갈 자원의 흐름이 원활하다는 의미이기에 외국인 집단을 더 위협적으로 인식하여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듯이 ‘여

성협오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의 희소가치인 좋은 성적이나 미래의 희소가치인 일자리 등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그것이 혼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요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부록 p. 67 참조).

앞서 언급한 각 변인별 측정문항의 번호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구분	내용		문항번호	Cronbach α
종속변인	여성혐오인식		【문5】 1~8	.851
독립변인	현실적 집단갈등인식		【문1】 1~3 【문2】 3~5	.674
	경제 전망	개인	【문10】	*
		국가	【문2】 2	*
	주관적 SES	가정경제	【문9】	*
		개인학업	【문8】	*
	사회지배경향성		【문3】 1~8	.791
	성별사회정체성		【문4】 1~6	.728
통제변인	국가경제인식		【문2】 1	*

* 문항이 하나이므로 Cronbach α 값을 확인하지 않음.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여성혐오인식은 .851, 현실적 집단갈등인식은 .674, 사회지배경향성은 .791, 성별사회정체성은 .72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도구의 Cronbach α 값이 모두 .6을 넘기 때문에 신뢰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앞서 설정한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인 여성혐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밝히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국가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여성혐오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통제변인을 일괄분석(Enter)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Y_i = a + b_1X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X_6 + b_7X_7 + b_8X_8 + e_i$$

Y_i : 여성혐오인식

a : 상수

X_1 : 현실적 집단갈등인식

X_2 :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 - 개인적 차원

X_3 :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 - 국가적 차원

X_4 : 주관적 SES - 가정의 경제적 위치

X_5 : 주관적 SES - 개인의 학업 수준

X_6 : 사회지배경향성

X_7 : 성별사회정체성

X_8 : 국가의 현재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e_i : 오차

IV. 결과분석

1. 상관관계 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본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수

		현실적 집단 갈등인식	경제 전망		주관적 SES		사회 지배 경향성	성별 사회 정체성	국가 경제 인식
			개인	국가	가정 경제	개인 학업			
현실적 집단갈등인식		1							
경제 전망	개인	-.095*	1						
	국가	-.127**	.352**	1					
주관적 SES	가정 경제	.072	.022	.089*	1				
	개인 학업	.008	.086*	-.010	.295**	1			
사회지배 경향성		.264**	.008	-.063	-.025	-.152**	1		
성별 사회정체성		.027	.252**	.095*	.125**	.018	.059	1	
국가경제인식		-.027	.082*	.355**	.068	.058	-.006	.006	1

*p<.05, **p<.01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변인들은 최소 $r=.082$ 에서 최대 $r=.355$ 로 나타나 각 요인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은 있되 그 정도는 크지 않았다. 부적 상관관계에 있어서도 유의한 관계에 있는 변인들의 상관관계수가 $-.095$ 에서 $-.152$ 사이에 있어 $|r| < .40$ 이므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가설검증 결과

다중회귀분석 실시 후, 앞서 추정한 다중공선성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인자(VIF)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공차가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가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다중공선성 분석 결과

		공선성 통계량	
		공차(tolerance)	분산팽창인자(VIF)
현실적 집단갈등인식		.905	1.105
경제 전망	개인	.810	1.235
	국가	.748	1.336
주관적 SES	가정 경제	.882	1.134
	개인 학업	.874	1.145
사회지배경향성		.899	1.112
성별사회정체성		.916	1.091
국가경제인식		.866	1.155

여성혐오인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분산분석표는 [표 5]와 같다.

[표 5] 여성혐오인식 영향 요인 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122	.238		.511	.609
현실적 집단갈등인식		.470	.040	.426	11.713	.000***
경제 전망	개인	-.063	.040	-.061	-1.576	.116
	국가	-.024	.029	-.034	-.842	.400
주관적 SES	가정 경제	.073	.035	.077	2.089	.037*
	개인 학업	-.062	.024	-.097	-2.627	.009**
사회지배경향성		.350	.040	.317	8.687	.000***
성별사회정체성		.176	.044	.145	4.013	.000***
국가경제인식		-.024	.031	-.029	-.774	.439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650	.422	.412	.58435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120.379	8	15.047	44.067	.000***
잔차	164.930	483	.341		
합계	285.309	491			

*p<.05, **p<.01, ***p<.001

[표 5]에서 제시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이 여성혐오인식을 설명하는 정도는 42.2%(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41.2%)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_{df=8,483}=44.067$, $p=.000$).

가설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현실적 집단갈등인식은 $p<.001$ 수준에서 여성혐오인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t=11.713$, $p=.000$). 현

실적 집단갈등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으므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과 여성혐오인식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일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했으나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2-1>은 기각되었다($t=-1.576$, $p=.116$).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 역시 비관적으로 전망할수록 강한 여성혐오인식이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가설 2-2>도 기각되었다($t=-.842$, $p=.400$).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가정의 경제적 위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라는 <가설 3-1>은 $p<.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 채택되었다($t=2.089$, $p=.037$). 그러나 <가설 3-2>에서 자신의 학업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라고 예측한데 반해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학업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했으며 그 결과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3-2>는 기각되었다($t=-2.627$, $p=.009$).

<가설 4>에서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p<.001$ 수준에서 두 변인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4>는 채택되었다($t=8.687$, $p=.000$). 성별사회정체성이 강할수록 강한 여성혐오인식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5> 역시 채택되었다.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t=4.013$, $p=.000$).

결국 현실적 집단갈등인식, 사회지배경향성, 성별사회정체성, 주관적 가정형편은 남자고등학생의 여성혐오인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에 남자고등학생들이 주관적 인식하는 자신의 학업수준이 낮을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은 국가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 모두 남자고등학생의 여성혐오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V.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남자고등학생의 여성혐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여성혐오인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현상에 대한 시민교육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남자고등학생의 여성에 대한 현실적 집단갈등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가설 2> 남자고등학생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일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가설 2-1>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가설 2-2>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가설 3> 남자고등학생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가설 3-1> 가정의 경제적 위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가설 3-2> 자신의 학업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가설 4> 남자고등학생의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가설 5> 남자고등학생의 성별사회정체성이 강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할 것이다.

가설 검증을 위해 서울, 경기 지역의 4개 고등학교 1, 2학년 남학생을 편의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92부의 응답을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남자고등학생들의 여성에 대한 현실적 집단갈등인식 수준은 여성혐오인식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즉 여성에 대해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외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혐오인식의 주요 원인이 경쟁의 격화일 수 있다는 것이며 사회적 조건이 악화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해질 수 있다고 추측 가능하다.

Esses 등(1998, p. 701)은 자원을 두고 경쟁이 심화될 때 집단 갈등이 커진다고 밝힌 바 있다. 남성청소년들이 여성혐오인식을 가지게 되는 데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분위기가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도 변별력을 강조한 상대평가, 수월성 위주의 교육 등이 집단 간 부정적 인식이나 차별적 태도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는 교육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 및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과 여성혐오인식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2>는 기각되었다. 개인 및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적 전망과 여성혐오인식이 부(-)적 관계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앞으로의 경제적 전망보다는 현재의 여건이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자원압박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독립변인인 주관적으로 평가한 가정의 경제적 위치와 개인의 학업 수준은 여성혐오인

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위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여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이는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적 배경을 가지는 남자고등학생들은 현재의 경제적 위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것이며 그렇기에 여성과의 경쟁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학업 수준은 낮게 평가할수록 여성혐오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론적 예측과는 반대의 결과로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개인의 학업 수준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앞으로 겪게 될 입시나 구직 과정에서 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쟁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질 수 있고 이것이 여성혐오인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원숙연(2011, p. 577)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른 방식의 해석도 가능하다. 해당 연구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외국인 정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교육을 통해 소수집단에 대해 관심 가지고 다양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치적 올바름을 내재화함으로써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면 개인의 주관적 학업수준과 여성혐오인식의 부적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 가능할 것이다.

넷째, 남자고등학생의 사회지배경향성은 여성혐오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사회지배이론은 집단 간에 우열을 인정하고 자원의 차등 분배를 정당하다고 여기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켜 현재의 불평등이 유지되고 그것을 통해 사회는 안정을 꾀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나온 개념인 사회지배경향성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고 외집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정도이다. 사회지배경향성이 강하다면 외집단의 가치를 폄하하고 지배 및 권력 행사를 하려는 욕구가 강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은 남학생의 경우 여성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여성혐오인식은 높게 나타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사회지배경향성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배제에만 작동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성혐오의 확산을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지 않고 여성혐오현상만 단독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존의 다문화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여성혐오현상의 해결을 고민하는 것도 유용한 접근방식일 수 있다. Allport(1958)에 따르면 집단 간 반목과 편견적 태도는 비친숙성과 긍정적 상호 접촉경험의 부족에서 기인될 수 있기에 접촉의 경험을 증진 시킴으로써 집단 간에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고취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 방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의존적이고,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등 접촉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Allport가 제안하는 교육 방식인 ‘사회 여행(social travel)’이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편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속에 일정 기간 머물면서 편견을 제거하는 방식이다(Allport, 1958, pp. 250-268). 현재 일선 학교에서 유명무실하게 실시되는 봉사활동과 현장체험학습을 결합시켜 이주노동자,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 소수자 집단과 함께하는 사회 여행의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을 상호의존적이고 긴밀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는 남학생들의 여성혐오인식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남자고등학생의 성별사회정체성과 여성혐오인식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는데 성별사회정체성이 강할수록 여성혐오인식도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5>도 채택되었다. 성별사회정체성은 단순히 남성이라는 자각과 같은 정체성이 아니다. 사회정체성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사회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집단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외집단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전략이 종종 사용된다고 한다. 성별사회정체성과 여성혐오인식 사이에 나타나는 정적 상관관계는 여성혐오인식이 남성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집단적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인식적 방식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성별사회정체성이 여성혐오인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 성별사회정체성을 포기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아존중감을 높이길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무의식적인 사회적 범주화와 동일시, 내집단 편향이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인지적 효율성을 위해 외집단을 동질적으로 인식하여 범주화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고 과정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여성혐오인식이 나쁜 여성의 유형을 만들고 대부분의 여성을 그 유형들에 포함시켜 낙인찍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되새긴다면 결국 여성혐오인식도 자동적 사고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다. Aronson 등(2016, pp. 77-79)은 자동적 사고의 오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사고하려는 노력을 통해 사고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내린 판단의 정확성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자만의 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견해를 접해봄으로써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판단의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여성혐오인식에 적용해본다면 교육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앞서 행한 설문조사 중 ‘우리 사회에 여성혐오현상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 492명 중 약 65%에 해당하는 317명이었다. 이들이 선택한 여성혐오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 1순위와 2순위를 다중 응답 분석한 결과 여성가족부를 꼽은 비율은 18.5%로 전체 선택지 중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표 6] 참조).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했다시피 여성가족부의 정책으로 알려진 것 중 다수가 허위 정보인 경우가 많다. Lord 등(1984, pp. 1233-1237)의 연구에 따르면 중립적 견해를 들었을 때보다 기존의 지식과 반대되는 견해를 들었을 때 기존의 판단을 수정할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수업 시간을 통해 여성가족부 정책에 대한 허위 정보를 바로 잡고 여성가족부를 옹호하는 견해를 제시하는 것과 같이 교사가 학생들이 가진 여성혐오인식에 대해 오류를 수정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청소년의 여성혐오인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6] 여성혐오현상의 원인 다중응답 분석

구분		빈도(명)	비율(%)	케이스 중 비율(%)
여성혐오 현상의 원인 1순위와 2순위	일부 여성의 잘못	260	35.6	70.1
	대다수 여성의 잘못	32	4.4	8.6
	사회적 조건의 악화	35	4.8	9.4
	대중매체	65	8.9	17.5
	과격화 네티즌(일베 등)	102	14.0	27.5
	남성들의 자격지심	17	2.3	4.6
	남성들의 성차별	41	5.6	11.1
	여성가족부	135	18.5	36.4
	기타	43	5.9	11.6
전체		730	100.0	196.8

2. 제언

본 연구는 남자고등학생의 여성혐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 현실적 집단갈등인식,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가정의 경제적 위치, 개인의 주관적 학업수준, 사회지배경향성, 성별사회정체성 등의 요인들이 여성혐오인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 중 다른 독립변인들과 달리 개인의 주관적 학업수준 변인만이 여성혐오인식에 음(-)의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함의 및 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여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여성혐오인식 수준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혐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혐오인식은 인지적 태도에 가

깍기에 여성혐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해 명확히 밝힌다면 여성혐오현상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혐오인식을 수정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교육적 방안의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연구가 있다. Lord 등(1984)은 기존의 지식과 반대되는 견해를 제공받으면 기존의 판단 오류를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러나 판단 오류의 수정이라는 인지적 태도의 변화가 곧 행동 변화를 이끄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여성혐오인식의 약화를 위해 인지적 처방을 내렸을 때 그것이 여성혐오의 행동적 발현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현선, 김현주(201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47권, pp. 7-29.
- 김금미, 한덕웅, 한영석(2003). 남성의 성별관계 인식과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권 1호, pp. 31-47.
- 김수아(2015).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표현. 『페미니즘 연구』, 15권 2호, pp. 279-317.
- 김수아, 허다운(2014). 『온라인상의 여성혐오표현 모니터링 보고서』. 한국여성단체연합연구보고서.
- 김수진(2016). 여성혐오, 페미니즘의 새 시대를 가져오다. 『교육비평』, 38권, pp. 163-188.
- 김양현, 정우일(2013). 인터넷 신상털기와 관음적 심리. 『한국범죄심리연구』, 9권 3호, pp. 71-86.
- 김재신, 한성열(2004). 권위주의 성격에 따른 공정과 인정의 갈등상황에서의 판단: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권 3호, pp. 97-114.
- 민경환(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권 2호, pp. 146-168.
- 박군석, 한덕웅(2004). 안정성, 합법성 및 사회정체성이 집단상대박탈과 분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권 1호, pp. 11-21.
- 박권일(2014). 여성 혐오,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나들』, 2014. 2. 4.
- 박준학(2004).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장애학생 또래에 대한 수용태도.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석, 이정림, 차주환(2006).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 및 심리치료』, 18권 1호, pp. 177-199.
- 송관재, 이재창, 홍영오(2001).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지체장애인 및 윤락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 문제』, 7권 1호, pp.119-136.
- 승재현(2016). 젠더혐오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여성혐오 범죄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8권 2호, pp.35-64.
- 신학진(2013). 중년의 권위주의적 성향과 외집단 접촉경험이 차별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9권 4호, pp. 113-134.
-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상수, 김인순, 이정현, 윤보라(2015).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2): 청년층 남성의 성평등 가치 갈등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계민(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권 2호, pp. 59-79.
- _____(2010).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권 1호, pp. 111-128.
- 오영삼, 노은영(201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서울시민의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별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5권 1호, pp. 187-209.
- 우에노 치즈코(2010).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역), 서울: 은행나무.
- 원숙연(2011).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의 영향요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권 4호, pp. 561-589.
- 윤광은(2017). 여성혐오 번역 논쟁의 본질은 번역이 아니다. 『허핑터포스트』, 2017. 1. 6.
- 윤보라(2013). 일베와 여성 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57호 가을호, pp. 33-56.

- _____ (2015). 김치녀와 벌거벗은 임금님들.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서울: 현실문화연구.
- 윤인진(2015). 한국인의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 109-110.
- 윤지영(2015). 전복적 반사경으로서의 메갈리안 논쟁: 남성 혐오는 가능한가. 『한국여성철학』 24권, pp. 5-79.
- _____ (2017). 현실의 운용원리로서의 여성혐오: 남성공포에서 통감과 분노의 정치학으로. 『철학연구』, 115집, pp. 197-241.
- 이미나(2016). 수도권 고교생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실태조사. 『시민교육연구』, 48권 4호, pp. 109-143.
- 이승현(2016). 여성혐오적 표현과 표현이 자유의 한계. 『이화젠더법학』, 8권 2호, pp. 1-34.
- 이양섭(1995). 정신지체아동에 대한 일반학급아동의 태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주, 박준모(2016). 성별과 노출 빈도에 따른 여성 혐오 발언 규제 지지도의 차이: 메시지의 반여성적 시각 및 영향력 지각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3권 2호, pp. 265-304.
- 임지연(2017). 여성혐오 시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서정시학』, 27권 1호, pp. 16-34.
- 정대훈(2013). 일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역사문제연구』, 30권, pp. 331-341.
- 정인경(2016).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페미니즘 연구』, 16권 1호, pp. 185-219.
- 정희진(2015). ‘남성 혐오’는 가능한가: 여성주의와 양성평등. 『인물과 사상』, 2015년 10월, pp. 110-124.
- _____ (2016). “메갈리아는 일베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유일한 당사자”. 『한겨레』, 2016. 7. 30.
- 천정환(2016).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메갈리아’ 논쟁까지: ‘페미니즘 붐기’와 한국 남성성의 위기. 『역사비평』, 2016년 8월, pp. 353-381.

- 최순양(2016).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인식의 왜곡, 그 정점의 강남역살인사건. 『한국여성신학』, 83권, pp. 14-26.
- 최현주, 정진경(1996). 도식의 사용이 수행평가에 미치는 영향: 성도식과 권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0권 1호, pp. 171-183.
- 한덕웅(2002). 『집단행동이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한윤형(2013). 왜 한국 남성은 한국여성들에게 분노하는가: 여성혐오,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문화과학』, 76권, pp. 185-201.
-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2003). 성정체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그리고 집단 자존심이 남녀 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권 1호, pp. 19-33.
- 황미요조(2015). 문화영역의 여성화와 여성혐오. 『여/성이론』, 32권, pp. 57-72.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자(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현산(2016). ‘여성혐오’라는 말의 번역론. 『한겨레』, 2016. 9. 8.
- Allport, G. W.(1958).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 Adorno, T., Frenkel-Brunswik, E., Levison, & Sanford, R. N.(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Aronson, E., Wilson, T. D., Akert, R. M., & Sommers, S. R.(2016). *Social Psychology*. 9th ed. Pearson Education.
- Altemeyer, B.(1998).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0, pp.47-92.
- Benokraitis, N. V., & Feagin, J. R.(1995) *Modern Sexism*. 2nd ed. Prentice-Hall, Inc.
- Coenders, M., Lubbers, M., & Scheepers, P.(2003). Majority populations' attitudes towards migrants and minorities. Report for

- the European Monitoring Center on Racism and Xenophobia.
- Cunningham, J., Dollinger, S. J., Satz, M., & Rotter, N.(1991). Personality correlates of prejudice against AIDS victims.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Vol. 29, pp. 165-167.
- Deaux, K., & Lafrance, M.(1998). "Gender".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pp. 788-827). 4th ed. McGraw-Hill Companies, Inc.
- Dollard, J.(1938). Hostility and fear in social life. *Social Forces*, 17, pp.15-26.
- Espenshade, T., & Hempstead, K.(1996). Contemporary american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0, No. 2, pp. 535-570.
- Esses, V. M., Jackson, L. M., & Armstrong, T. L.(1998). Intergroup competition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An 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4, No. 4, pp. 699-724.
- Esses, V. M., Dovidio, J. F., Jackson, L. M., & Armstrong, T. L.(2001). The immigration dilemma: The role of perceived group competition, ethnic prejudice, and national identity.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7, No. 3, pp. 389-412.
- Forsyth, D. R.(2010). *Group Dynamics*. 5th ed. 남기덕 외(역). 『집단 역학』. 서울: 쉐게이저리닝코리아.
- Glick, P., & Fiske, S.(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3, pp. 491-512.
- Jones, J. M.(1997). *Prejudice and Racism*. 2nd ed. McGraw-Hill Companies, Inc.
- Kuhn, D., & Dean, D.(2004). Metacognition: A bridge between cognitive psychology and educational practice. *Theory into Practice*,

- Vol. 43, No. 4, pp. 268-273.
- Lord, C. G., Lepper, M. R., & Preston, E.(1984). Considering the oppsite: A corrective strategy for social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7, No. 6, pp. 1231-1243.
- Noonan, J. R., Barry, J. R., & Davis, H. C.(1970). Personality determinants in attitudes toward visible disability. *Journal of Personaltity*, Vol. 38, pp. 1-15.
- Nussbaum, M.(2004). Hiding from Humanity: Disgust, shame, and the law. 조계원(역).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서울: 민음사.
- Olzak, S.(1986). “A competition model of ethnic collective action in american cities, 1877-1889”. in S. Olzak & J. Nagel (Eds.), *Competitive Ethnic Relations*(pp. 17-46). Orlando: Academic Press.
- Pratto, F., Sidanius, J., Stallworth, L. M., & Malle, B. F.(1994).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on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4, pp. 741-763.
- Sherif, M.(1988). The Robbers Cave Experiment: Inter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정태연(역). 『우리과 그들, 갈등과 협력에 관하여: 로버스 케이브 실험을 통해 본 집단 관계의 심리학』. 서울: 에코리브르.
- Tajfel, H.(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mmer, A.(1997). Explaining xenophobia and racism: A critical review of current research approaches. *Ethnic and Racism Studies*, Vol. 20, No. 1, pp. 17-41.
- Whitley, B. E., & Lee, S. E.(2000). The relationship of authoritarianism and related constructs to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30, pp. 144-170.

Zárate, M. A., Garcia, B., Garza, A. A., & Hitlan, R. T.(2004). Cultural threat and perceived realistic group conflict as dual predictors of prejudice. *Journal of Exper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0, pp. 99-105.

<부록>

NO			
* 연구자가 쓰는 칸입니다.			

청소년 대상 남녀관계 의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청소년의 남녀관계에 대한 의식 및 가치관을 알아보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설문지의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혹시 설문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 년 5 월

서울대학교 대 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 전공 민미홍

I. 다음은 사회분야별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세요.

문1) 다음은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평소 생각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 경험하지 않은 경우라도 일반적인 경우를 떠올려 답해주세요.)

	질문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여학생들로 인해 남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잘 받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교사들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관대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생활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본다.	①	②	③	④	⑤

문2) 다음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평소 생각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질문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현재 한국의 경제적 상황은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취업할 시기의 한국의 경제적 상황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는 점에서 남자가 여자 보다 취업에 불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4	군 가산점 제도를 없앤 것은 부당하다. (*군 가산점 제도: 군대를 제대한 대한민국 국민 중 7 급·9급 공무원시험, 임용고사, 공기업 입사 시험 등의 응시자에게 가산점이 적용되는 제도)	①	②	③	④	⑤
5	직장에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힘든 일을 맡는데 비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문3) 다음은 사회 일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평소 생
각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질문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다른 집단의 사람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당신이 속한 집단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때로는 다른 집단에 강압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강압: 힘이나 권력 따위로 강제로 억누름)	①	②	③	④	⑤
3	우월한 집단은 열등한 집단을 지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출세를 위해서 때로는 다른 집단을 짓밟을 필요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사회 문제가 덜 발생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어떤 집단은 높은 위치에 있고 다른 집단은 밑바닥에 있는 것은 아마도 좋은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열등한 집단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때때로 어떤 집단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 하게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4) 다음은 성별사회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성별에 대하여 느끼거나 행동하는 바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질문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내가 남성인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치가 높지 못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남성이라는 사실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자신이 남자답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른 남성들과 연대감을 지니고 있다. (*연대감: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마음)	①	②	③	④	⑤

문5) 다음은 남녀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평소 생각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질문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여자들은 일을 할 때 생기는 문제를 자신들만 겪는 것처럼 과장해서 부풀린다.	①	②	③	④	⑤
2	여자들은 남자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이익을 얻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일반적으로 여자들을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여자들은 공정한 경쟁에서 졌을 때조차 마치 성차별 때문인 것처럼 불평을 늘어놓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대부분의 여자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여자들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7	여자들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떤 모임을 현명하게 이끌어가려면 대부분 남자들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6) 우리사회에 ‘여성혐오’ 현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문6-1)로**

② 아니요 **문7)로**

문6)에서 ①응답자만 문6-1) 귀하는 ‘여성혐오’가 생기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와 그 다음 가는 이유 각각 1개씩만 골라주세요.

가장 큰 이유	
그 다음 이유	

①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일부’ 여성들 때문에
② ‘대부분의 여성들’이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③ 일자리 부족, 경쟁의 심화 등 사회적 조건의 악화 때문에
④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대중매체(SNS, 인터넷, TV 등) 때문에
⑤ 일베와 같은 키보드 워리어(과격환 네티즌) 때문에
⑥ 경쟁에 뒤처진 남자들의 자격지심 때문에
⑦ 남성들의 성차별적 관점 때문에
⑧ 여성가족부 때문에
⑨ 기타()

문6-1)에서 ①, ②응답자만 문6-2) 귀하는 다음 중 여성혐오를 유발하는 ‘비난받을 만한 여성’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 유형부터 순위를 매겨주세요.

① 의무(ex. 군대)는 지지 않고 권리만을 요구하는 여자들 ()
② 능력이 없어서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여자들(ex. 김여사) ()
③ 공중질서를 어기는 무개념 여자들(ex. 개똥녀, 메르스녀) ()
④ 남자에게 의존해서 경제적 이익을 바라는 여자들 ()
⑤ 페미니스트 ()
⑥ 기타() ()

II. 다음은 귀하의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세요.

문7) 귀하가 재학했던 중학교는 어디에 속합니까? (전학의 경험이 있는 경우, 복수응답이 가능합니다.)

- ① 남녀공학 중학교 ② 남자중학교

문8) 전국의 같은 학년 학생들과 비교해서 귀하가 스스로 평가하는 학업 수준은 어디에 속합니까?

- ① 상위권 ② 중위권 중의 상 ③ 중위권 중의 중
④ 중위권 중의 하 ⑤ 하위권

문9) 귀하가 스스로 평가하는 가정형편은 어디에 속합니까?

- ① 상류층 ② 중류층 중의 상 ③ 중류층 중의 중
④ 중류층 중의 하 ⑤ 하류층

문10) 귀하는 자신의 미래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 ①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
②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③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문11) 귀하의 형제자매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자신은 몇 번째 자녀입니까? 인원수를 써주세요.

남 녀 중 째

문12) 귀하의 핸드폰 번호 중간 자리를 써주세요(본 정보는 사후 동의를 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의 설문지를 식별하여 폐기하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0	1	0	-					-								
---	---	---	---	--	--	--	--	---	--	--	--	--	--	--	--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Misogyny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 With a focus on their perceptions of
realistic group conflicts,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gender social identity -

Min, Mi-Hong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or : Lee, Mi-Na, Ph.D.

With the rising concern about the recent phenomenon of misogyny in South Korean society, the misogynic tendency is also found among male adolescents. Since misogyny is directly connected to discriminations against minority groups and can pose a threat to democracy, misogyny among adolescents is an urgent issue to be solved.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misogyny of male adolescents, especially male high school students, and establish a base to solve these issues. For this purpose, the study set the following hypotheses with the analytic framework of the 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 social dominance theory, and social identity theory:

<Hypothesis 1> The higher perception of realistic group conflicts that male high school students have toward women, the stronger their misogyny will be.

<Hypothesis 2> The more pessimism they have for economic situations, the stronger their misogyny will be.

<2-1> The more pessimism they have for their personal economic situations, the stronger their misogyny will be.

<2-2> The more pessimism they have for the nation's economic situations, the stronger their misogyny will be.

<Hypothesis 3> The higher the subjective social and economic status, the stronger their misogyny will be.

<3-1> The higher the subjective family economic status, the stronger their misogyny will be.

<3-2> The higher the subjective academic level, the stronger their misogyny will be.

<Hypothesis 4> The higher the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 stronger their misogyny will be.

<Hypothesis 5> The stronger the gender social identity, the stronger their misogyny will be.

In an effort to test these hypotheses, the investigator conveniently sampled approximately 500 high school boys in the tenth and eleventh grade from four different high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conducted a survey with them in May, 2017. Collected data was statistically estimat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as male high school students had higher perceptions of realistic group conflicts, higher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stronger gender social identity, their misogyny grew stronger, which led to the adoption of <Hypotheses 1, 4, and 5>. Their outlook for personal and national economic situations had no significant statistical effects on their misogyny, which dismissed <Hypotheses 2-1 and 2-2>. The misogyny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became stronger as they evaluated their family's economic status to be higher, which adopted <Hypothesis 3-1>. As they perceived their academic level to be lower, their misogyny grew stronger, which dismissed <Hypothesis 3-2>.

These findings led to the following inferences:

First, when men consider women as a potential threatening competitor, it can cause their misogyny. Secondly, men's perceptions of their current social and economic status have a greater influence on their misogyny than their outlook on their future. Thirdly, when men have a stronger desire for ranking groups and dominating out-groups, their misogyny becomes stronger. Finally, men tend to denigrate the value of women, their out-group, in the process of reinforcing their gender social identity to increase their self-esteem.

These analysis results have the following educational implications: first, given that a competitive social climate can strengthen misogyny, they should abstain from education that puts too much emphasis on competition in school; second, there is a need to search for solutions for the issues of misogyny in their connections to the discrimination issues against other minority groups; third, teachers need to actively provide students with information against misogyny and offer them a chance to correct it.

keywords : Misogyny, Perceptions of Realistic Group Conflicts,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Gender Social Identity

Student Number : 2012-21386